
 <b>인천광역시</b>		<b>보 도 자 료</b>		 <b>인천의 꿈</b> <b>대한민국의 미래</b>	
		배포일자	2022년 12월 15일(목) 총 3매		
담당 부서	자연재난과	담 당 자	• 자연재난팀장 김형석 ☎440-3351 • 담당자 윤태웅 ☎440-3352	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### 인천시, 장비 253대 동원해 제설작업에 만전

-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 1단계 돌입, 시, 군·구 1천2백여 명 비상근무 -
- 대로·언덕길·교량 등 제설작업 집중, 시민 안전사고 등 유의 당부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12월 15일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 253대를 동원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.

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전 9시 현재 인천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, 시내지역에는 3~8cm의 적설이 예상된다. 기온이 낮아지면 그대로 도로에 결빙이 될 수 있는 수준이다.

시에 따르면 기습 폭설로 인한 출근길 교통 대란을 대비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제설장비 196대와 451명의 인력을 동원해 염화칼슘 살포 등 사전 제설작업을 실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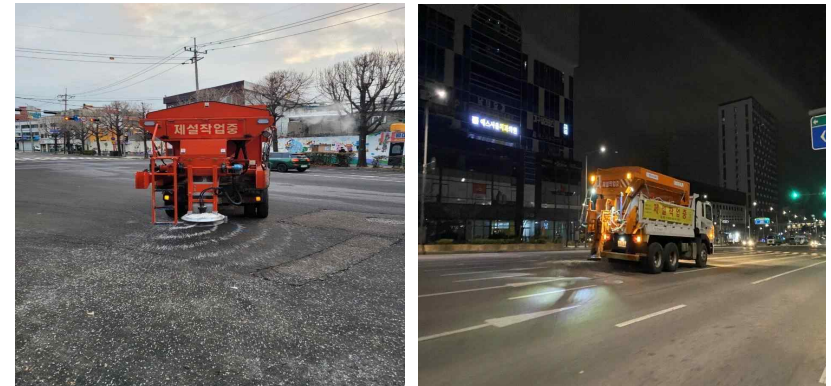
시는 강설에 대비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시와 군·구 인력 1,252명이 비상 상황근무에

돌입했다.

또한, 강설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적설량을 주시하면서 염화칼슘 및 친환경 제설제 등을 살포해 본격적인 제설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. 대로와 언덕길, 결빙구간, 교량 등 취약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, 만일에 있을지 모를 재난사고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.

백창열 시 자연재난과장은 “시민 여러분께서는 건물 주변의 보도나 골목길에 대한 ‘내 집앞, 내 점포(상가) 눈치우기 운동’에 동참해 주시고, 특히, 시설물 피해와 낙상 등 빙판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건강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” 고 말했다.

< 제설작업 사진 >



< 참고 > 인천시 2022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목표 및 추진과제

현장중심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시민피해 최소화

기본 방향

세부 추진과제

총력 대응

① 과학적·선제적 상황관리 및 총력대응

- 지대본 중심의 선제적 상황판단 및 재난대응
- 위험기상 집중감시, CCTV 활용 등을 통한 실시간 기상정보 확인

② 현장대응 민·관·군 협력체계 구축

- 비상상황시 민·관·군 상호지원체계 구축 및 훈련 실시
- 재해우려지역(상습결빙구간, 적설취약구조물 등) 취약지역·시설 안전관리 강화

③ 취약시설·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관리

- 적설취약구조물 안전관리 및 결빙취약구간에 대한 실시간 예측·예보 강화
- 한파취약계층 인명보호 대책, 산간·도서 고립우려지역 안전대책 시행

현장중심 대책 추진

④ 도로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대책 추진

- 도로관리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맞춤형 제설대책 추진
- 도로별 교통취약구간 위험도, 위계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 실시

⑤ 교통대책 등 분야별 시민생활 안전대책 추진

- 출퇴근/등하교길 교통소통 및 공항, 철도 등 분야별 안전 강화
- 농수산시설 재해예방 대책 강화, 체계적인 긴급복구 지원대책 추진

신속한 피해지원

⑥ 한파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지원강화

- 한파 취약계층 안전관리, 긴급구조·구급 지원대책 추진
- 한파 고위험 근로자 및 학생 안전관리 대책 추진

대시민 홍보강화

⑦ 다매체 활용한 대시민 홍보강화

- 재난문자, TV자막 등을 활용한 예방중심 시민 홍보강화
- 일상생활 속 다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대중 홍보전략 실시